

연중 제 18 주일

기도서 405 면

제 1 독서 : 출애 16, 2-4, 12-15
제 2 독서 : 에페 4, 17, 10-24
복음 : 요한 6, 24-35

숲정 이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사 목국
인쇄판 리국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전주 교구청
☎ ③ 5098 ③ 3201

□ 강론



힘이신 △ 하느님

김윤섭 신부

아는 것이 힘이 다. 하느님을 아는 데 무한한 힘이 있다. 믿음으로 하느님을 알 수 있기에 믿음의 힘은 무한하다. 냉담의 근본원인은 믿음의 대상인 하느님을 잘 모르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하느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에, 성서가 우리에게 제시해 준 하느님을 소개하고자 한다.

구약의 중심사상은 야훼 하느님이고, 신약의 중심사상은 엠마누엘 하느님이다. 한마디로 성서가 우리에게 제시해 준 하느님은 스스로 존재하면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분이다. 이 외에도 성서는 생명 자체이고, 힘이신 하느님을 보여준다. 성서 구석구석에서 하느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순전한 신이신 하느님이 어떻게 사물 안에 내재하시고 힘이 되시는지 좀 더 이해하기 위하여 힘이 무엇인지 정의 내려보자.

힘이란 어떤 것에 존재하면서 스스로 움직이거나, 남을 움직이게 하는 작용, 고정되어 있는 물체를 움직이게 하거나, 움직이고 있는 물체를 변화시키는 작용이라 한다. 힘은 감각세계에서 오관으로 포착할 수 없고, 다만 작용에 의해서 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神)도 마찬가지다. 하느님은 분명히 신으로서 스스로 존재하시지만, 우리 육신 오관으로 포착할 수 없고, 다만 믿음의 축각으로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서 느낄 수 있는 분(有)이다.

하느님은 당신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전능하신 창조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보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분은 영원으로부터 계시고, 우리와 함께 존재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모든 것 안에 내재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구원되었으며, 의인이 되어간다.

성서를 통독하면서, 하느님이 힘 자체라는 것을 깨달았고, 원동력으로서 모든 것 안에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나에게 매일 생명력을 주시고 모든 것에 능력을 주시는 그분께 감사드릴 뿐이다.

(진안 천주교회 주임신부)

* 축! 제 6대 전주 교구장 *

박정일 주교님 착좌

일시 : 1982. 8. 10. 오전 11시

장소 : 전주 해성 중·고 대강당



헛소리

1

날씨가 무더우면 사람들이 짜증을 많이 낸다. 그 짜증의 모습은 신경질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필요없는 헛소리들을 자주 하게 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별로 크게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헛소리를 한다. 하지만, 패기는 감당하기 어려운 응어리 때문에 폭발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껍데기 들어줄 수만은 없다. 그래서 티격태격 시비가 붙는다. 그러지 않아도 더운데 열을 올린다. 어찌보면 이열치열(?)이 될런지도 모른다.

여하튼, 그런 헛소리 두 마디만 재탕해보자.

2.

일본 사람들 이야기. -역사를 조작하는 사람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박쥐가 제 조상을 봉황이라 한다고 누가 믿어줄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서 언제까지나 버티겠다는 것인가? 밀도 끝도 없이 좌충우돌하는 꼬라지다. 하지만 여기서도 배울 것은 있다. 조작되는 역사가 더 이상 어디에서고 있어서는 안되겠기 때문이다. 매일매일 역사를 적어나가는 일을 맡은 사람이 독상해야 할 이야기다. 누가 매일 매일 역사를 적어 나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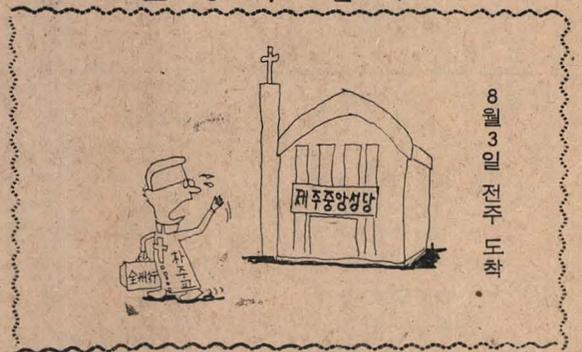
3.

이멜다 이야기.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 유고시에는 "집단 후계 기구"가 그 직을 대행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 기구 안에 마르코스의 부인 이멜다가 한 자리를 차지했다고 한다. 남의 나라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참으로 들어주기에 무더운 소리다. 거기다가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이라고 했더니, 우리의 아픈 역사가 되살아나서 더욱 짜증스럽다.

4.

시원한 이야기 좀 들어보자. 제발.

숲정 이 산책



8월 3일 전주 도착

200주년을 위한 섭외활동

가톨릭과 공산주의

지 학 순

2백주년은 한국 신도들만의 행사나 잔치로 그쳐서는 안된다. 한국 교회 2백주년이 온 겨레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고, 세계의 형제들에게 새로운 모범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홍보와 연결된 섭외활동도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된다

(1) 교회 행사 홍보와 섭외에 대한 반성 : 지난 150주년 기념 신앙대회를 돌이켜 볼 때, 세계를 향한 홍보가 지극히 미흡했음을 반성하게 된다. 우리 교회는 2백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자세를 세계에 알리고 그들과 기쁨 및 결의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2) 섭외 대상 : 먼저 국내의 인사들에 대한 섭외활동이 필요하다. 한국 천주교회 2백주년이 온 겨레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먼저 우리의 겨레를 이 잔치에 초대해야 한다. 또한 해외를 대상으로 한 섭외활동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하여 한국 교회와 연관이 있는 여러 수도회 및 신심운동체와 단체를 초청하기 위한 섭외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의 한국인 신자들도 한 자리에 모여 형제적 일체감을 나눌 필요가 있으므로 이들을 한국 교회는 초빙해야 할 것이고, 한국 외 방전교회 사제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현지민들도 초빙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리고 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고위 성직자들도 섭외활동의 대상이 되리라 생각된다.

(3) 섭외방법 :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섭외의 단계를 먼저 설정해야 되고 계획된 진도표에 의해서 섭외활동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됨이 좋다. 이 섭외위원회는 홍보를 담당할 위원회와 긴밀한 협조 아래 국내 인사와 외국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요청하는 문제들을 다루게 된다. 이와 같은 섭외계획을 위한 철저한 기획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섭외활동 중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1983년도 말까지 이미 완료해야 한다. 또한 신앙대회를 비롯하여 각종의 행사나 잔치가 될 1984년도에는 이들을 접대하고 환송하는 문제도 섭외위원회에서 말아야 한다.

섭외 계획은 다른 모든 계획들과 상호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각종 계획들을 참조로 하여 2백주년의 섭외활동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고 일사분란하게 진행됨으로써 2백주년을 기념하는 모든 것들이 더욱 빛나게 될 것이다.

최근 우리 원주교구 최 기석 신부 사건으로 여러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들이 마치 가톨릭이 공산주의자들을 옹호하고 양성하는 것처럼 신전하였다.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는 무식한 행위인가. 가톨릭 교회는 하느님을 믿는 유신론주의고, 공산주의는 하느님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무신론주의다. 이렇게 상극이 되는 두 사상 체계가 같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2차 대전 후에 가톨릭은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말할 수 없이 많은 피해를 받았다. 우리 나라에서도 수많은 성직자들과 일반 신자들이 살해, 납치, 추출되는 희생을 당했고, 중국과 구라파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았고, 현재도 받고 있는가. 공산주의자들은 가톨릭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항상 우리를 해치고자 한다. 그런 공산주의자들을 우리 가톨릭이 어떻게 옹호하고 양성하겠는가. 도대체 말도 안되는 무식한 생각이다.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 제일 먼저 피해를 받는 곳이 가톨릭이다. 나라의 언론인 정치인 대중의 생각이 이것 밖에 안된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가톨릭이 가난한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정부가 잘못된 일에 대해서 비판도 한다. 그러니까 위정자들은 언론을 동원해서 가톨릭을 포함하며 악선전을 하고 있다. 가톨릭이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용공행위라면,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는 공산주의자들만이 일하고 있는가. 우리 정부는 노동자 농민을 외면하고 있던 말인가.

우리 나라 국민의 2/3이상이 가난한 노동자 농민인데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혹은 어떤 특수층을 위한 정부인가, 가톨릭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 시대부터다. 공산주의가 러시아에서 혁명을 일으킨 것은 1917년이지만, 우리 교회는 2천 년 전부터다. 신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실제 행동에서 신을 부인하는 사람, 즉 종교를 억압하거나 양심을 부인하는 사람들, 비윤리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실천 무신론주의자라고 한다. 이들은 이론으로 신을 부인하는 사람, 즉 공산주의자 같은 사람들과 다름이 없다.

(천주교 원주 교구장·주교)

—경향잡지 7월호에서—

강산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아는

전 일 관 광

전 화 ⑥ 6 6 6 6 ~ 8

조 (안토니오)선

박 (가브리엘)용 이 안내합니다

주단·포묵(훈수·회갑웃감)도매상

각종 숲, 이불(밍크)카펫지도매상

서울 주 단

전화 ③ 0 4 5 3

천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 안토니오

교우의 식당

味 滿 회 관

(舊. 쇠꼬리탕 집)

단체·연회석·냉난방 완비

정성을 다해 양심껏 모시겠습니다.

많은 애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북은행 후문 앞, 협성아카데미트윗집

전화 ② 9 3 0 1 김 기봉(베나시오)



□ 교리교사 하계 연수회 성료

지난 22~24일 가톨릭 센터에서는 무더위 속에도 193명이나 되는 각 본당 교리교사들이 자리를 함께, 새롭고 알찬 연수회를 갖았는데, 창인동에선 13명이 참석(최고)했는가 하면 팔파, 장수, 한울, 용안본당은 한 명도 참석을 못해 작은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수고하신 강사님들과 교리교사님들께 두루 감사드립니다.

□ 주일학교 교리경시 대회

교구 교리교사 연합회에서는 방학교리 기간중 아래와 같이 교리경시 대회를 갖는다. 성서에 대한 보다 큰 관심과 각 본당간의 일치, 교류를 위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본 행사에 교사들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력있기를 바란다.

일 시 : 각 본당 임의 선택(7월 26일~8월 7일)

범 위 : 하계 주일학교 교재(아브라함·솔로몬)

방 법 : 필요한 시험지 부수를 교구로 신청, 교사들이 채점하여 교구로 송부

시 상 : 개인별(본당 자체), 본당별(교구 교리교사 연합회)

□ 서울 가톨릭 합창단 금일

중앙, 창인동 본당에서 순회 연주

서울 가톨릭 합창단이 하계 휴가기간을 이용한 지방 순회연주회차 내도, 오늘 중앙성당(10시 30분 공성미사)과 창인동성당(저녁 8시 미사)에서 음악미사 연주를 갖는다. 성음악 특히 미사전례의 합창에 관심을 갖고 계신 성가대원 뿐 아니라 음악을 사랑하는 교형들의 많은 참여 있기를 바란다. 단원들의 고운 뜻에 지혜 감사드립니다.

□ 김희남, 유영도 신부님 임관

지난 4월 17일 임대하신 두 분 신부님이 교육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7월 31일자로 임관, 본격적인 군중사목에 임하시게 됐다. 새롭게 맡게 될 어렵고 고된 군중사목의 길에 진도 극복 가득하시도록 축하와 더불어 더 많은 기도와 성원 함께 베풀어 주시기 바란다.

□ 박정일 주교 문장(紋章) 설명

1. 태극선 형태 : 위대한 순교정신과 문화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전주교구를 상징한다.
2. 십자가 : 평화의 주(主)이시며 영원한 진리이신 주세주 그리스도를 뜻한다.
3. 중앙 비둘기 :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천주성령(聖神)을 의미한다.
4. 우측 별 : 주세주의 모친이요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를 상징한다.
5. 좌측 나뭇잎 : 순교자의 승리 특히 그리스도와 수많은 순교 선열들의 성혈(聖血) 위에 피어난 교회의 승리를 나타낸다.
6. 3색 : 믿음(우측 청색)과 희망(나뭇잎 녹색)과 사랑(좌측 적색)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을 뜻한다.
7. 아래 글씨 : "충성과 은유"라는 집회서 45장 4절의 말씀을 좌표로 삼고 있는 교구장의 표이다.



요심이 (469) 김병오



상당수준의 교칙본(제르니, 쏘나타) 소화자에게 약보없을 시도 반주해 낼 수 있는 세미 크라식 반주법의 희소식

째즈·크라식

피아노 반주법

각 본당 전자율전 구입시 상담 및 협조해 드립니다.

성악 : 음대 지망자나 가요계 지망자

전화 ④ 3770

이일규(알로이시오)

※ 구 역전과 전교중간 사거리 전북은행 노충동지점 앞

□ 땀 제거(독일수입품) 하 이 도 난
□ 사마귀 제거 베 루 말
전주 시민약국
전화 4-0009
3-3338
중앙시장 입구
약사 김병의(마벨로)

전주 꽃 직매장
진선미 꽃집
꽃꽂이 수강생 모집
조화(종이꽃) 대어
전화 ④ 2628
이 마리아(명자)
범 락도(덕배)

건물대여!
학원·사무실에 적당(2층)
위치 : 북개도로(동부시장)
신광교회 앞
크기 : 18평
전세 : 150만원에 월 4만원
연락처 : 전화 ④ 1368
김유태(프란치스코)

쥬정이가「광고」이용안내
쥬정이의 활발한 편집운영과 교우들의 친교와 유대 협력 관계를 위해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 광고 1간 1회 5천원
문의전화 ④ 5098
쥬정이가 편집실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서울 가톨릭 합창단 하기순희 음악미사: 오늘 중앙성당 10시30분 미사, 창인동성당 오후 8시 미사
2. 유럽 성화 전시회: 오늘까지, 장소-전북 예술회관
3. 은총추원회: 2일(월) 오후 8시, 가톨릭 센터 3층, 회원을 위한 미사
4. 들심신서 연구회(구약): 2~5일, 대성-경규생, 성서 공부하시는 분, 접수-성마오로 시원, 1만 5천원
5. 1지구 중·고생 하기 순례회: 일시-2~5일, 장소-선문사(야영)
6. 대학생 연합회 도보 성지순례: 일시-6~10일, 장소-진산-전주
7. 박주교님 전주 좌담: 3일 전주 도착하십시오
8. 김희남·유영도 신부 임관: 7월 31일 임관하셨습니다
9. 전화 승설 안내: 순창수녀원-3135, 함열수녀원-① 1539
10. 축! 영명: 8일-강 인찬(성도미니교) 신부

(중앙)

전화 ①711~3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박인호
 사도 회장

- ※ 성경읽기: 에레미야 20~31장 까지
1. 사도회 상임위원회: 7일 오후 7시, 사제관 회의실
 2. 성심 부녀회: 6일 어머니 미사 후
 3. 중·고생 수련회: 3일~6일 까지
장소-현안 부귀, 회비-3,000원
 4. 신축 헌금에 신입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후철(80만원), 이정숙(50만원), 김철근·장배영·정봉준(각 20만원), 이철중·허정석(각 30만원), 문명희·오명순·장길주·송기섭(각 10만원), 강신만·노길예(각 5만원), 착한 사마리아인회 상품판매 이익금(155만원) 총계: 67,338,000원
- 지난주 봉헌금: 671,050원 교무금: 1,049,500원

(노송동)

신부 ①0969
 수·사 ②7032
 주임 신부 김점원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이홍재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 후
 2. 대학생활 야의 피정: 2일~5일 까지, 지리산 뱀사골 준비-회비 7천원, 쌀 3되, 성서, 성가집, 기도서, 묵주
 3. 금주의 성경읽기: 신약의 베드로 1,2서 요한 1,2,3
 4. 신월리 공소에 올겐 회사: 양순례, 이성순씨께 감사
 5. 예비자 교리안내: 일반-매주(월) 공식미사 후
남자반-매주(목) 저녁미사 후
학생반-매주(토) 오후 4시
 6. 1일 찾집 개점: 매주(월) 공식미사 후
 7. 쟈 모임: 매주(토) 오후 5시
쟈미사-매주(일) 오전 9시
 8. 교무금 납부합시다: 본당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9. 학생 여름 성경학교: 9일(월)~21일(토) 까지
시간-오전 8시 30분~12시
 10. 웅변대회: 원교마감일 8일 까지 제출하세요.
- 지난주 봉헌금: 334,391원 교무금: 322,700원

(덕진)

전화 ②2182번
 주임 신부 서석근
 보좌 신부 안철열
 사도 회장 양상열

1. 축! 영명(31일) 안 이나시오 신부님
공식미사 후 축하식
 2. 진복회 부녀회 월례회의: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세요
 3. 주일학교 특별교리: 2일~7일 까지
본당과 공소에서 동시 교리, 오전 9시~12시 30분
 4. 젊은이들의 모임: 금요일 저녁 8시
성서, 성가집, 필기도구 준비, 관심과 협조에 9일
 5. 1세대 1인 인도 서약서 봉헌 바람
15일 부터 예비자 교리 시작합니다
 6. 중·고생 수련회 협조에 감사: 부녀회·사도회
- 지난주 봉헌금: 548,040원

(복자)

전화 ②5238번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1. 주일학교 하기 특별교리: 2일~7일, 오전 9시~12시
부모님들 빠짐없이 꼭 보내주세요
2. 첫 철레 5: 5일(목) 저녁 8시
첫 철레 7: 7일(토) 저녁 8시
3. 복자 부녀회: 2일(월) 어머니 미사 후
4. 성우회 하기 특별 단합대회: 다음주(일) 8일
장소-상관천 및 중인천 예정 9시까지 성당 집합
5. 감실에 꽃 봉령: 염윤영 데레사(학생) 년중 매 주일
6. 학생회 하기 수련회에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7. 군중 후원회: 가입하신 분들 월회비 납부해주시길...
8. 성지순례: 11일(수), 장소-배론성지

9. 다음주 전례: 해설-강기연, 독서-①유기순 ②천진
- 지난주 봉헌금: 476,510원

(서학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명환
 사도 회장 활인구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반장님 모임: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푸리아 모임: 다음주 오후 2시, 빠짐없이 참석 바람
 4. 자모회 모임: 매일 첫 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성당 회합실
 5. 교리교사 단합대회: 2일, 장소-해금강
 6. 소록도 나환자촌 위문: 일시-16일, 오전 5시반 출발
인원-78명 10일까지 접수 바람(선착순)
지참물-점심 도시락, 물 지참, 양복 선박요금
 7. 폐품 수집: 품병·공병·신문지·양은, 많은 협조를...
 8.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① 함문철 ② 박장춘
- 지난주 봉헌금: 230,805원 교무금: 312,000원

(술정리)

전화 ②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수·유 ③9567
 사도 회장 김수림

1. 사도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유치원 교실
 2. 누갈다부녀회 월례회: 7일
 3. 첫 영성체 교리: 14일까지 매일 오전 8시 30분
부모님들의 협조 바람
 4. 성경공부: 다음 주부터, 각 셀 지도자 대학생 전원
 5. 봉헌 봉투에 6월말까지 결산금이 기재 되었으니 보
시고 혹 밀린 교무금을 청산해주시기 바람
 6. 치주 전례
해설-홍성조, 독서-김영채·노재득, 기도-이강노
 7. 미사 참례자 안내: 이정남, 방창주, 신종남, 백옥님
이명자, 이명희
- 지난주 봉헌금: 468,200원

(전동)

신부 ①6208
 전화 사무 ②3222
 수녀 ③8347
 주임 신부 김병준
 보좌 신부 박병준
 사도 회장 이송두

1. 사도회: 공식미사 후
 2. 유아세례: 8시 30분 미사 후
 3. 자모회·장우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주일학교 하계 교리: 2일~7일 오전 9시~12시
준비물-교리책(500원), 필기도구, 크레파스, 미사도구
 5. 첫 영성체 교리: 매일 오후 4시 30분
 6. 김정식 자작 송가 발표회
성당 전립기금 마련 자선 음악회
○78년 MBC 대학 가요제 은상 수상자
○일시-8월 7일(토) 오후 8시 전통성당
 7.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박종주, 독서-①이헌재 ②김동연
공식미사: 해설-양현홍, 독서-①신일균 ②백종홍
저녁미사: 해설-경양수, 독서-①김동수 ②이승호
- 지난주 봉헌금: 527,170원

(파티마)

신부 ②0915
 수녀 ④4804
 주임신부 김영빌
 사도회장 활희상

1. 기사회: 오는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2. 사도회 월례회: 오늘 저녁 미사후, 사도 임원 전원
 3. 첫 영성체반의 첫 고백: 12일에 갖고 첫 영성체는
금요일 어머니 미사 때 있을 예정
 4. 하기 중·고 수련회: 협조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5. 여름 성경학교: 선생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6. 9월 26일 영성식 예정: 예비자들 준비하세요
 7. 예비신자들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레지오 단원들께서
도 열심히 활동하시다
- 지난주 봉헌금: 176,470원 교무금: 409,000원